

“전남 인재의 꿈·열정·비전 응원합니다”... ‘인재한마당’ 성료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에너지공대와 도서 보급 등 협약



전남도는 9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로 선발된 해외유학생, 으뜸인재, 과학-예능 영재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한 '2023 인재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4년간 8800여명 육성

전남도는 9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로 선발된 해외유학생, 으뜸인재, 과학-예능 영재 등 538명의 꿈과 열정, 비전을 응원하는 자리인 '2023년 전남 인재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원장, 후원금 기탁자, 선발된 인재와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인 전남도 인재한마당은 홍보존 관람, 인재 증서 수여식, 인재 대표 소감 발표, 축하공연, 세리머니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선배 으뜸인재 이산아(한예종), 이예빈(연세대)의 성악 2중창과 전남예술고에서 전문교습을 받는 예능영재 이하영, 정소연, 한나

연, 윤서정의 가야금 연주도 이어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색 인재', '핵심 인재', '글로벌 인재',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까지 발굴하거나 지원한 인재는 8800여명으로, 도비 300억원이 투입된 전남의 대표 인재육성 사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원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 윤의준, 이하 한국에너지공대)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문학도서 1만 여권을 기증했다.

<사건>

기증된 도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학 나눔 도서보급사업'의 도서 선정을 위한 심의용 도서 1만 권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출간된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문학 분야 신간 도서로 구성돼 있다.

예술위와 한국에너지공대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 도서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우수 문학도서 보급 지원, 지역주민 및 대학생의 문화 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이다.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인프라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TV프로그램 14일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August 14th.

TV프로그램 15일

15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August 15th.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음 6월 28일 甲辰) ☎ 010-9790-8237

36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앞장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48년생 문서에 이로운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60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다. 72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84년생 불만하던 반드시 틀어고쳐야 한다. 96년생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제이다. 행운의 숫자 : 30, 54

37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9년생 끝도 없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61년생 애초에 알고 있었던 바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73년생 의욕이 증만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85년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23, 77

38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리라. 50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62년생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74년생 한변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다. 86년생 초기 상황에서 거의 승부가 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98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55

39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51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63년생 오는 이 마지막 말고 가는 이 잡지 말자. 75년생 길은이 니 행하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겠다. 87년생 반복될 수도 있는 구도에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99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행운의 숫자 : 46, 68

40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52년생 자기당작에 빠지지 않도록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64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76년생 상당히 높은 궤도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 88년생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라. 00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4, 74

41년생 여인이 결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53년생 계획에 부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65년생 자의적인 발상은 오만을 야기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 77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89년생 장고하여 판단한다면 참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01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2, 70

42년생 정도만 걸으면 아무런 하지도 없었다. 54년생 규칙적 이라야만 현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66년생 다시 한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심하게 보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90년생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수다. 02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행운의 숫자 : 20, 75

43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만이 난무하고 있다. 55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67년생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느니라. 79년생 변통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번 낫다. 91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03년생 절대로 대중 넘길 문제가 아니니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62

44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56년생 적절한 융통성은 윤택유 역함을 하리라. 68년생 시기나 내 용을 잊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80년생 아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92년생 현재의 고통스러움은 미래의 자선이 될 것이다. 04년생 드나드는 것에 각별히 주의함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29, 84

45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57년생 전문성의 확보만이 성사로 이끄는 근간이 된다. 69년생 함께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지겠다. 81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93년생 길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확대해진다. 05년생 상호 간에 발전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95

34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46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58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70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질 없는 일이 될 것이다. 82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니 모든 미련을 버려라. 94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4, 67

35년생 속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47년생 검증되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59년생 가짜 판국에서 진짜가 파묻히는 애석함이 보인다. 71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83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95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33, 91